

#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동향 내용분석

남경우<sup>1</sup> · 장명훈<sup>2\*</sup>

<sup>1</sup>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부장,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sup>2</sup>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 Content Analysis of Vocational Research Trend in Construction Field

Nam, Keong-Woo<sup>1</sup>, Jang, Myunghoun<sup>2\*</sup>

<sup>1</sup>Doctoral Completion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pertie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vocations in the construction fiel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foundation for vocational studies, but there was a marked increase over the next 15 years. Second, research related to vocations in the construction field has been more active in engineering than in social science. Third, the primary data method was used much more than the secondary data method, an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a questionnaire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method. Fourth, human object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s 78.9%, and among them, technicians was the most. Fifth, as the research topic,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such a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dealt with most, and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uch as national job competency standards, job analysis, construction accidents, and career developme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topic of the research was actively being dealt with.

**Keywords :** Construction, Vocation,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기준 한국 건설업<sup>1)</sup>의 취업자수는 전체 산업 취업자수 27,125천명 중 2,020천명(7.4%)으로, 제조업(16.3%), 도매 및 소매업(13.5%), 숙박 및 음식점업(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에 이어 다섯 번째 높은 비율이며(ECOS, 2020),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관한 서비스업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취업자수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산업에서 건설분야 취업자수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20년 8월 기준 건설업의 이직률이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17.7%)을 차지하고 있으며(MOEL, 2020), 이는 산업 전체 이직률(5.2%)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점차 평생직장의 개념

이 사라져가고 직업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경력(caree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ocke & Latham, 2002). 건설분야에서도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그 간의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그 간 축적되어 온 건설분야 직업관련 선행 연구들의 속성을 분석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의 게재년도는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는 어떤 연구분야에서 이루어졌는가?

연구문제 3.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는 어떤 주제와 대상을 다루고 있는가?

\* **Corresponding author:** Jang, Myunghou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ublic of Korea

**E-mail:** jangmh@jejunu.ac.kr

**Received** November 22, 2020; **revised** February 1, 2021

**accepted** February 1, 2021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F.건설업'을 말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은 향후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동향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적용하였다. 모집단은 국내 학술단체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2020년 9월 기준)한 학술지 중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로 설정하였으며, 건설분야의 범위는 토목, 건축 및 조경으로 한정하였다. 모집단에 대하여 비확률방식 중 판단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 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6개의 분석유목과 22개의 하위단위로 유목체계(category system)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부터 4까지는 코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용분석하였고, 연구문제 4는 주제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 2. 예비적 고찰

### 2.1 직업의 의미

한국에서 직업학이 태동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직업학의 학문적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99년 이후이다(Yook, 2017). 직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NIKL, 2020)”이라는 것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보수를 받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근로(Kim, 2004)”라는 의견에서 보듯이 생계에 필요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보는 측면(경제성)도 있지만,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Jung & Kim, 2001)”로 보거나 “보수를 받아 그것으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 개인의 성능에 따른 개성을 공동생활에 발휘하며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계속적 생활활동(KELI, 2020)”,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사회적 및 기술적 구성(Rothman, 1987)”으로 보는 것처럼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계속적 생활상태(사회성)로 보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처럼 직업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는데, vocation, occupation, career, job이라는 용어를 보면 모두 직업이라는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Jung & Kim, 2001). vocation은 조물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일을 의미하고 occupation은 인간이 보상을 받기 위해 종사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Hwang, 2010). career는 occupation보다 크고 종적(longitudinal)이며 발전적인 개념이다. 일관된 occupations에서 job의 연속은 career를 구성한다(Jung & Kim, 2001). job은 개별종사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할 일련의 과업(tasks)과 임무(duties)를 의미하며(ILO, 2012),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job의 한국어 표현은 직무이다(Hwang, 2010).

한편 건설분야 직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정하거나 발행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 현실적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기술자격, 취업알선 등의 기본틀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2호)의 해설서(KEIS, 2017)에서 건설분야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채굴 관리자(0161)’에 대해 건설 회사, 광산 및 채굴업체 또는 관련 부서의 운영 및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 관리하는 직업으로,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40)’에 대해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건설·채굴직(70)’에 대해 채굴 현장에서 광물을 채취하거나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기능 업무와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각 직업에 대한 설명은 한국고용직업분류와 매우 유사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한국직업전망에서는 건설분야 직업에 대해 16개의 대표직업을 기준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9호) 상 건설분야의 능력단위를 통해서도 직업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분야의 직업은 주로 옥외의 작업환경을 기반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고유한 결과물을 점진적으로 구체화 해나가는 프로젝트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직업임을 알 수 있었다.

### 2.2 건설의 범위

문헌별로 건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그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의 범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문헌은 그 사례가 드물어 건설과 건설업에 대

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부 문헌에서 건설에 대해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NIKL, 2020)”으로, 건설업에 대해 “특정한 토지에 노동, 물질, 기술을 집약해서 새로운 건축이나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는 산업(Kim et al., 1999)”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포함된 단어의 뜻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의만으로 건설의 범위를 유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현 제도 내에서 건설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정의)와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에 토목, 건축(실내건축 포함),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조물 설치·해체 등을 포함하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는 제외하고 있다.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건설공사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에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실내건축 포함),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차이를 보인다. 셋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 건설분야의 중직무에 건축(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포함), 토목(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함), 조경, 도시·교통, 건설 배관, 건설기계운전을 포함하고 있다.

Table 1. Scope of construction

Classification	A	B	C	D	E	F
Civil Engineering	○	○	○	○	○	○
Architecture / Building	○	○	○	○	○	○
Industrial Equipment/Plant	○			○		○
Landscaping	○	○	○	○	○	○
Environmental Facility	○	○		○		○
Building Equipment	○	○	○	○		○
Structure	○			○		
Interior	○	○	○	○		○
Mining		○				
Urban/Town Planning		○	○			○
Transportation		○	○			○
cadastral survey			○			○
Electric		○		○		
Information & Communication				○		
Fire-Fighting Installation				○		

A :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 :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 :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D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F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넷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건설업(F, 41~42)에는 건물, 토목(지반조성 포함), 환경설비, 산업생산시설, 조경, 건물설비(소방시설 포함), 전기, 통신, 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설장비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중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에 건축, 토목, 조경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한국표준교육분류의 세분류 중 건축 및 건설(073)에는 건축, 토목, 도시, 조경, 실내건축, 환경, 건축설비, 지적공간정보, 플랜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Statistics Korea, 2017).

현 제도 내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당해 목적 및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의 범위에 대해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토목, 건축, 조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Table 1).

### 2.3 내용분석 방법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서적, 학회지, 광고 메시지, 문서, 신문사설, 뉴스, 월간지, 노래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통해 나타나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내용들을 일정한 기준을 통해 객관적·체계적·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Berelson, 1952; Holsti, 1969; Kim, 2011). 구체적으로, 각종 자료의 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를 분류하거나 빈도수를 측정함으로써 이들 속에 담겨진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Kim, 2013). 최근 내용분석은 언론학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자료의 속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연구의 경향과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 Kim, 2014). 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특정 학문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동향을 주요한 연구주제 또는 연구의 흐름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Ko & Yang, 2016; Park, Jeon & Jeong, 2010).

내용분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ha, 2012; Jo et al., 2011; Kim, 2011; Lee, 2019). 첫째, 2차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 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설문조사나 실험과는 다르게 분석오류로부터 자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장시간의 시간적 변화흐름을 파악하기 쉬우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개입성(unobtrusive) 조사가 가능하다 장점이 있다. 둘째, 기록물에만 의존하므로 그 속에 포함된 속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작용하여 신뢰성의 문제와 연구결과의 일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자료의 대부분이 명목척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추론적 통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특정 현안

또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Oh, Ko & Oh, 2017).

### 2.4 건설분야 내용분석 선행연구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검색되지 않았고, 건설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있어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내용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건설분야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목 설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연구와 비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연구로 나누고, Namkoong (2007)과 Cha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분석 체계와 단계를 참고로 하여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Antecedent Research on Content Analysis in the Construction Field

Author	Content	Object	Sample	A	B	C	D	E	F	G	H	I	J
Park et al. (2017)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Articles	29	x	o	o	x	x	x	x	x	o	x
Lee & Yoo (2019)	Remodeling	Journal Articles	100	x	x	x	o	x	x	x	x	o	o
Bok (2019)	Facility Management	Journal Articles	78	o	o	o	o	o	o	o	x	x	x
Song & Kim (2020)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Articles	91	x	o	o	x	o	x	x	o	x	o
Lee et al. (2020)	Soswaewon	Journal Articles	68	x	o	x	x	x	x	x	x	x	o
Tae & Park (2010)	Maeul-mandeulgi	Local Ordinances	26	x	o	o	x	x	x	x	x	x	x
Kim & Lee (2015)	Housing for the Disabled	Guidelines	10	x	o	o	x	x	x	x	o	x	o
Cho (2014)	Housing-Chonseil Institution	News Articles	623	o	o	o	o	o	o	o	x	o	x
Hwang & Lee (2012)	Recall Environments	TV Soap Opera	3	o	o	o	x	x	x	x	x	x	x
Park & Lee (2006)	Plan Design of Apartments	Homepage of Construction Firms	10	o	o	o	x	o	x	x	o	x	o
This Study	Vocation in Construction Field	Journal Articles	71	o	o	o	o	o	o	o	o	o	o

- A : Have the research problems been clearly established in advance?
- B : Are the population and sampling methods clearly defined?
- C : Has the analysis category been clearly established?
- D : Has the analysis category been set in advance?
- E : Have the criteria for setting analysis categories been suggested?
- F : Are subunits clearly presented?
- G : Has the reliability between coders been measured?
- H : Has coder training been conducted?
- I : Has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or inferential) been conducted?
- J : Was additional methodology used in addition to content analysis?

먼저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계획 또는 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사례가 많았다. Park et al. (2017)은 고령자

주택개조 분야의 지식축적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9편의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학술분야,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지,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으며,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Lee and Yoo (2019)는 리모델링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00편의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게재연도,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병행하였다. Bok (2019)은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논문들의 연구동향과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78편의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지, 발행연도, 연구성격,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중 유일하게 코더간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Song and Kim (2020)은 아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학문적 시사점 도출과 후속연구 제안을 위해 91편의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게재시기, 연구방법,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목적,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게재시기별 교차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Lee et al. (2020)은 소재원 연구의 위상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68편의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와 연구기간을 분석하였고, 특히 논문의 주제어인 키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비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다루고 있었다. Tae and Park (2010)은 지난 10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속성과 정체성을 규명해보기 위해 26개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의 개념, 조례의 제도적 위계와 구성, 조례의 주체와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Kim and Lee (2015)는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의 도약을 목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장애인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10권을 대상으로 하여 가이드라인별 항목의 중복성, 시설의 세부 구성체계, 항목 서술체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총 1,424건의 독립적 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Cho (2014)는 주택전세제도의 소멸논쟁 추이와 향후 전망을 유형화할 목적으로 과거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뉴스기사 623건에 대해 소멸과 존속, 조건부와 무조건, 급진적과 점진적의 측면으로 빈도분석과 상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Hwang and Lee (2012)는 치매노인들에게 친숙한 회상성 환경콘텐츠를 지원하고 DB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TV 드라마 3편에서 등장하는 주거공간을 세부요소별로 분석하였다. Park and Lee (2006)는 아파트 차별화 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의 변화에 대해 조사해보고 향후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10대 건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

하는 평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배치, 공간구성, 공간연계, 보조공간 등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건설분야 내용분석 방법 적용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계획, 디자인, 설계, 유지관리, 정책,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그 편수가 많지 않아 건설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 적용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amkoong (2007)이 제시한 내용분석 방법론 체계를 모두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고, 특히 코더의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법론의 주요 체계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 3. 분석방법

#### 3.1 분석자료의 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0년 10월 30일 기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www.kci.go.kr) 논문검색 페이지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논문제목으로 '직업' 영역의 4단어와 '건설' 영역의 4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두 영역 간 각 단어 AND조건(16가지)으로 검색된 연구논문을 사용하였다.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세분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직업과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는 영어 표현 네 가지(vocation, occupation, career, job)에 대한 한국어 표현으로 vocation과 occupation은 직업, career는 경력 또는 진로, job은 직무로 조작화하여 사용하였다. 건설영역의 검색단어로는 2.2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적 용어인 건설과 함께 현 제도 내에서 건설의 범위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토목, 건축, 조경을 포함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80편이었으며, 미등재 논문 1편, 중복된 논문을 4편을 제거<sup>2)</sup>하고, 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검색 단어의 쓰임이 다른 논문<sup>3)</sup> 4편을 제외하여 <Table 3>과 같이 최종적으로 71편의 논문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3. Number of paper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Search term	Jikeop (Vocation, Occupation)	Gyeonglyeok (Career)	Jillo (Career)	Jikmu (Job)	Total
Geonseol (Construction)	4	6	0	37	47
Tomok (Civil Engineering)	0	0	1	0	1
Geonchuk (Architecture)	5	2	1	9	17
Jogyong (Landscaping)	0	0	0	6	6
Total	9	8	2	52	71

#### 3.2 분석유목 선정 및 분석절차

분석유목은 데이터 분석단위에 대한 분류기준이며, 내용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구 목적에 맞게 유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Cho & Oh, 2017; Ko & Yang, 2016; Lee, 2019; Oh, Ko & Oh, 2017). 이는 연구동향의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어 유목체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hong, Jung & Kim, 2007). 유목체계는 배타성, 포괄성, 독립성의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내용은 한 가지 유목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유목에든 남김없이 분류되어야 하고, 한 유목의 값이 다른 유목의 값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Boo, 2003; Choi, 2017; Holsti, 1969; Lee, 2016).

이 연구에서는 Bok (2019), Cha (2012), Choi (2020), Kim and Kim (2014), Kim and Lim (2020), Lee (2019), Oh, Ko and Oh (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목체계를 참고하고, 유목체계의 구성원칙과 이 연구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able 4>와 같이 6개의 분석유목과 22개의 하위단위로 구성된 유목체계를 설정하였다.

Table 4. The category system used in this study

Category		Sub unit (Number)
1	Publication year of paper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4)
2	Research field of journal	Social Science, Engineering, Others (3)
3	Data Collection method of paper	Primary method, Secondary method, Mixed method (3)
4	Research method of paper	Quantitative method, Qualitative method, Mixed method (3)
5	Research object of paper	Manager, Manager & Engineer, Engineer, Engineer & Worker, Worker, Others (6)
6	Research topic of paper	Psychology-Behavior, Structure-Environment, Others (3)

첫째, 논문의 게재년도 유목은 한국 직업학의 학문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에 해당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sup>4)</sup> 20년간에 대해 각 5개년 간 4차시기로 나누어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학술지의 연구분야 유목은 학술연구분야분류표(NRF, 2020) 상의 8가지 대분류 중 직업분야가 주로 속해 있는 사회과학, 건설분야가 주로 속해 있는 공학, 그 외 기타

- 2) '건축&직업'과 '건축&진로'가 서로 2편씩 중복된 경우는 각 한편씩 제거하고 한편씩 남겼다. '건설&경력'과 '건축&경력'이 중복된 1편의 경우는 '건설&경력' 논문을 제거하였고, '건설&직무'와 '건축&직무'가 중복된 1편의 경우는 '건설&직무' 논문을 제거하였다.
- 3) 예를 들면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건설'이라는 단어를 '건설적 사고'와 같이 확장된 의미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 4) 분석자료 검색시점이 2020년 10월 30일 이므로, 2020년에 게재된 4편의 논문은 해당 년도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여 논문의 게재년도 유목과 게재년도와의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 3가지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논문의 자료수집방법 유목은 1차 자료 방법, 2차 자료 방법 및 혼합 방법의 3가지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수행중인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고, 2차 자료는 당면한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서 직·간접적으로 연구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들을 말한다(Chae, 2013). 1차 자료를 얻는 방법에는 설문, 면접, 관찰 등이 있으며, 2차 자료에는 기존 정부자료, 각종 통계자료, 정기·비정기 간행물, 기업의 수집자료, 학술지 발표 논문, 인터넷자료, 상업용 수집자료 등이 있다. 넷째, 논문의 연구방법 유목은 양적방법, 질적방법 및 혼합방법의 3가지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양적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측정하여 나타난 수치화된 자료를 통계적 추측과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고,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대해 직관적으로 판단한 자료 또는 글로 기술·묘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Oh, Ko & Oh, 2017). 다섯째, 논문의 연구대상 유목은 관리자, 관리자 및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및 기능자, 기능자, 기타의 6가지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세세분류 중 건축 관련 관리자(14111), 토목 관련 관리자(14112), 조경 관련 관리자(14113)를 관리자, 세분류 중 건축가(2311), 건축공학 기술자(2312), 토목공학 기술자(2313), 조경 기술자(2314)를 기술자로, 소분류 중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781),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782),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783)를 기능자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관리자, 기술자 및 기능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리자 및 기술자와 기술자 및 기능자 단위를 추가하였다. 여섯째, 논문의 연구주제 유목은 심리·행동, 구조·환경 및 기타의 3가지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직업분야의 연구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직업 연구의 대상 또는 영역을 분류하는 일반론적인 연구(Han, 2004; Hwang, 2010; Park, Kim & Lee, 2008)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던 옥외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기반의 특성을 가지는 건설분야 연구주제 분류와는 차이가 있어서 유목설정에는 참고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정 산업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직업만족, 직업의식, 직업심리, 조직심리, 직업윤리 등의 심리·행동적 측면과 직업정보, 근로조건, 경력개발, 직업교육, 직업능력 등의 구조·환경적 측면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향을 참고하여 임의로 하위단위를 설정하였다.

### 3.3 자료 처리 및 신뢰도 측정

논문의 분석을 위해 Microsoft의 Excel을 이용하여 분석 유목과 하위단위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코더 훈련을 실시한 후 연구자 2명이 각각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더 간에 코딩한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코더가 2명일 경우에 신뢰도계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Lee, 2016). 1차 코딩 후 코더 간 신뢰도계수를 산정한 결과 0.94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불일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의 상의를 거친 후 다시 코딩한 결과 모두 일치하였다.

$$\text{Coefficient of Reliability} = \frac{2M}{(N_1 + N_2)}$$

M: Number of coding matches between two researchers

N<sub>1</sub>: Number of coding by researcher 1

N<sub>2</sub>: Number of coding by researcher 2

## 4. 분석결과

### 4.1 게재년도

원문에서 게재년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학술지인용색인 논문상세 검색결과에 기재된 발행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1차년도 기간에는 해당논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한국 직업학의 학문적 기틀 마련 초기에 해당되므로 특정 산업분야로의 연구범위 확장성이 부족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차년도가 시작되는 2005년에 비로소 1편이 게재되었고, 이후 2009년까지 매년 1~4편의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총 10편이 게재되었으나 한 분야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3차년도인 2010년부터 2014년 기간에는 2차년도의 약 2배인 19편이 게재되어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4차년도인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에는 3차년도의 2배인 3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완전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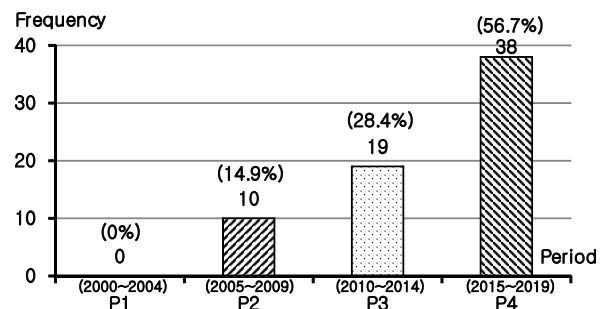


Fig. 1. Publication year of papers

데, 이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4차년도 기간의 건설업 취업자수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2 학술지의 연구분야

등재학술지의 연구분야(대분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확인되는 서지정보 상 연구분야를 확인하여 분류하였으며, 71편의 논문에 대해 사전 설정한 유목체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분야 15편, 공학분야 36편, 기타분야 14편으로 나타나,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과학보다 공학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공학분야의 해당 학술지는 총 11개이며 그 중 대한건축학회 관련 학술지(대한건축학회논문집 및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안전학회지,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이 4~5편 정도이고, 나머지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등은 1~2편이 게재되었다. 사회과학분야의 해당 학술지는 총 14개로 대한경영학회지 2편을 제외한 13개 학술지에서 각 1편씩 게재되어, 공학분야의 논문편수 대비 학술지수(0.31)가 3배정도 많은 수(0.93)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공학분야에서 특정 학술지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Table 5. Research field of journals

Field	Frequency (A)	Number of journal (B)	Ratio (A/B)
Social Science	15 (21.1%)	14 (35.9%)	0.93
Engineering	36 (50.7%)	11 (28.2%)	0.31
Others	20 (28.2%)	14 (35.9%)	0.70
Total	71 (100%)	39 (100%)	0.55

기타분야로는 농수해양학 2개 학술지에 6편, 복합학 5개 학술지에 7편, 예술체육학 6개 학술지에 6편, 의약학 1개 학술지에 1편이 게재되었다. 이처럼 학술연구분야 8개 대분류 중 6개 분야에 분산 게재되어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수해양학분야에서 2개 학술지에 6편이 게재된 이유는 한국조경학회지에서만 5편이 게재되었기 때문이고, 예술체육학분야에서 6편이 게재된 이유는 실내건축이 디자인에 속하고 디자인이 예술체육학분야에 속해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게재논문을 제외한 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게재시기별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2005년 처음으로 게재된 논문이 공학분야이고 이후 3차년도와 4차년도 꾸준히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었다<Table 6>.

Table 6. Research field by publication period

Field	Period			
	P2	P3	P4	Total
Social Science	2 (3.0%)	6 (9.0%)	7 (10.4%)	15 (22.4%)
Engineering	7 (10.4%)	9 (13.4%)	18 (26.9%)	34 (50.7%)
Others	1 (1.5%)	4 (6.0%)	13 (19.4%)	18 (26.9%)
Total	10 (14.9%)	19 (28.4%)	38 (56.7%)	67 (100%)

한편 직업분야의 등재학술지로는 10개<sup>5)</sup>가 검색되었으나, 분석대상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직업과 자격연구 1개에 그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는 공학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과학 또는 직업학 분야에서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방법

각 논문의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방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Data collection method by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Method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Total
Primary	29 (40.8%)	13 (18.3%)	10 (14.1%)	52 (73.2%)
Secondary	1 (1.4%)	7 (9.9%)	0 (0%)	8 (11.3%)
Mixed	3 (4.2%)	7 (9.9%)	1 (1.4%)	11 (15.5%)
Total	33 (46.5%)	27 (38.0%)	11 (15.5%)	71 (100%)

1차 자료 방법이 52편으로 2차 자료 방법 8편보다 6.5배 정도 많았으며,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혼합된 방법은 11편이었다. 1차 자료 방법 52편 중 설문조사 방식이 41편으로 78.8%를 차지하였고, 설문과 면담 혼재방식이 5편, 면담조사 5편 실험조사가 1편으로 나타났다. 2차 자료 방법 8편은 문헌조사가 4편, 사례조사가 3편, 자료조사가 1편이었으며, 공식통계자료와 논문, 보고서 등의 공개문헌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합 방법 8편은 자료나 문헌을 조사한 후 추가 설문을 진행한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위와 같이 건설분야 직업관련 연구에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보편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방법이 33편, 질적방법이 27편, 혼합방법이 11편으로 나타나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연구 방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양

5) 직업능력개발연구, 직업재활연구, 직업교육연구, 직업과 자격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진로교육연구, 취업진로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의 회복이 장기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건설업 종사자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도록 두는 대신 직무에 대한 요구수준과 만족도를 측정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주제 유목 하위단위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조직몰입, 직업의식, 직무배태성, 자기효능감, 직무탈진 등 심리·행동적 측면의 주제어가 91회,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건설재해, 경력개발, 직무역량, 진로, 근로조건 등 구조·환경적 측면의 주제어가 111회, 기타 주제어 74회로 나타났다. 기타 주제어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데이커기법, 사례기반추론, 계층화분석기법, 다중회귀분석 등의 연구방법, 둘째, 건설근로자, 건설업종사자, 안전관리자, 건설엔지니어 등 인적 객체 연구대상, 셋째, 건설산업, 건설현장, 특수학교, 교정시설 등 비인적 객체 연구대상이다.

연구주제를 게재시기별로 보는 차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빈도차이는 아니었다( $\chi^2=1.821$ ,  $df=4$ ,  $p<.769$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하위단위의 연구가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0).

Table 10. Research topic by publication period

Research Topic	Period			
	P2	P3	P4	Total
Psychology-Behavior	15 (5.4%)	24 (8.7%)	52 (18.8%)	91 (33.0%)
Structure-Environment	14 (5.1%)	30 (1.9%)	67 (24.3%)	111 (40.2%)
Others	12 (4.3%)	15 (5.4%)	47 (17.0%)	74 (26.8%)
Total	41 (14.9%)	69 (25.0%)	166 (60.1%)	276 (100%)

연구주제를 연구분야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chi^2=4.299$ ,  $df=4$ ,  $p<.367$ ), 사회과학분야에서 구조·환경적 측면의 연구는 8.3%에 그치고 있었고, 공학분야에서 구조·환경적 측면의 연구주제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Table 11). 이는 20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각 산업현장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훈련, 자격시험 등으로 활용성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인 2차년도와 3차년도에 NCS, 직무분석, 교육과정, 자격제도 관련 논문이 특정 산업분야(건설)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의 재해자수가 제조업에 이어 유사한 비율로 2위를 지켜오다가 2016년부터 1위로 급증함에 따라 4차년도 기간에 건설분야에서 재해, 사고, 유해·위험, 질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11. Research topic by research field

Research Topic	Research field			
	Social Science	Engineering	Others	Total
Psychology-Behavior	29 (10.5%)	43 (15.6%)	19 (6.9%)	91 (33.0%)
Structure-Environment	23 (8.3%)	60 (21.7%)	28 (10.1%)	111 (40.2%)
Others	15 (5.4%)	40 (14.5%)	19 (6.9%)	74 (26.8%)
Total	67 (24.3%)	143 (51.8%)	66 (23.9%)	276 (100%)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그 간의 연구 속성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학의 학문적 기틀 마련 초기에 해당되는 1차년도(2000년~2004년)에는 해당 논문 게재가 없었으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를 거치며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두 번째, 건설분야 직업 관련 연구는 사회과학보다는 공학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정 학술지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2차 자료 방법보다 1차 자료 방법이 월등히 많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연구방법이었다. 네 번째, 연구대상으로는 인적 객체가 78.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 기술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다섯 번째, 연구주제로는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조직몰입과 같은 심리·행동적 측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건설재해, 경력개발과 같은 구조·환경적 측면의 주제도 활발히 다루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KCI등재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국내·외 학위논문과 해외 학술지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픽모델링이나 언어네트워크 분석 등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The Free Press, Illinois, pp. 89-90.  
 Bok, J.Y. (2019).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Facility Management: Focused on the

- KCI Journals(2008-2018).” *Journal of Korea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 14(1), pp. 35-42.
- Boo, S.Y. (2003). “Content Analysis on Destination Images Improvement through Hosting Festival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7(2), pp. 113-132.
- Cha, S.B. (2012). “Methodological Review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the Tourism Studies.”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1(6), pp. 215-229.
- Chae, S.I. (2013).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3rd ed., B&M Books, pp. 263-285.
- Cho, D.H. (2014). “Categorization of Prospects to the Change of Housing-Chonsei Institution by Contents Analysi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9(6), pp. 33-50.
- Cho, K.E., and Oh, M. (2017). “Casino Research in Korea: A Content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7), pp. 215-239.
- Choi, C.H. (2017). “Research Method.” Yoonseongsa, pp. 272-285.
- Choi, Y.S.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s a Means of Tourism: Focused on Content Analysi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6(6), pp. 52-59.
- Chong, Y.K., Jung, W.H., and Kim, Y.G. (2007). “Research Trends regarding Foodservice Management: Review of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2), pp. 73-91.
- Chung, S.H., and Nam, Y.S. (2018).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ourism Resources using Research Keywords: Applying to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Tourism Research*, 43(2), pp. 171-193.
- 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 (2020). “16.6.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ank of Korea, <<https://ecos.bok.or.kr/>> (Nov. 20, 2020)
- Han, S.G. (2004). “Current Status and Tasks of Vocational Research (Working Paper 2004-0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pp. 2-5.
- Holsti, O.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ddison-Wesley, pp. 14-15.
- Hwang, J.H., and Lee, Y.S. (2012). “A Content Analysis on Recall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of TV Soap Opera Residential Space in the 1960s and 198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2), pp. 165-174.
- Hwang, K.D. (2010). “Suggestions to Improve Vo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7-29.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Jo, S.N., Lee, H.J., Ju, Y.J., and Kim, N.Y. (2011). “Qualitative research design & practice.” Green, pp. 117-126.
- Jung, K.S., and Kim, S.D. (2001). “21st Century Occupational Structure.” Baeksan Seodang, pp. 35-41.
- Kim, B.A., and Lee, Y.S. (2015). “Content Analysis on Housing Design Guidelines for the Disabl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1(1), pp. 37-46.
- Kim, D.K. (2004). “Occupational Socialization.” Kungiwon, pp. 123-128.
- Kim, G. (2011). “Understanding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Approaches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ed., B&M Books, pp. 413-434.
- Kim, M.H. et al. (1999).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ing.” Kimundang, pp. 13-14.
- Kim, M.K., and Kim, B.K. (2014).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Korean Wave(Hallyu) Tourism: Focused on the KCI Journals(2003-2012).”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3(3), pp. 1-18.
- Kim, S., and Lim, H.S. (2020). “Content Analysis of Tourism Development Trend in KCI Journal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2(1), pp. 27-51.
- Kim, S.H. (2013). “Principles of tourism research methodology: Social Science Discussion and Research Paper Writing Methodology.” Baeksan, pp. 141-142.
- Ko, M.Y., and Yang, S.S. (2016). “Content Analysis of Welfare Tourism Research Trend in KCI Journal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2(4), pp. 181-201.
-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KELI) (2020). “Labor Glossary.” <[https://elti.koreatech.ac.kr/lmsV2/WordDictHome\\_list.do](https://elti.koreatech.ac.kr/lmsV2/WordDictHome_list.do)> (Nov. 20, 2020)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2017). “A Guide t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2018」.”
- Lee, D.Y. (2016). “Research methodology to hear through stories.” Spacetime, pp. 84-132.
- Lee, E.J., Yoo, U.S., and Cheon, D.Y. (2020). “An Analysis of Trends in Studies on Soswaewon Garden Since 197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6), pp. 119-128.
- Lee, H.S. (2019). “Eco-tourism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Korea: A focus on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3(2), pp. 5-20.
- Lee, S.S. (2016). “Creative Problem Solving Methodology.” Keimyung University Press, pp. 206-220.
- Lee, S.Y., and Yoo, S.E. (2019).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modeling: Focused on Design and Planing Research.”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 Spatial Design*, 14(2), pp. 167-178.
- Locke, E.A., and Latham, G.P. (2002).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The American psychologist*, 57(9), pp. 705-717.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0).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http://laborstat.moel.go.kr/>> (Nov. 20, 2020)
- Namkoong, K. (2007).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Bobmunsa, pp. 84-132.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2020)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Nov. 20, 2020)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20) "Classification of Academic Research Fields." <[http://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http://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Nov. 20, 2020)
- Oh, M.J., Ko, M.Y., and Oh, S.H. (2017).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rend of Jeju Tourism: Focused on the KCI Journals in Tourism Area." *Journal of Tourism Studies*, 29(1), pp. 73-95.
- Park, J.S., Jang, M.S., and Lee, Y.S. (2017). "Trends of Domestic Research o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6(1), pp. 25-32.
- Park, N.H., and Lee, J.M. (2006). "A Content Analysis on the Plan Design of Brand Apartmen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3), pp. 53-62.
- Park, S.C., Kim, J.J., and Lee, Y.H. (2008). "Overseas Job Research and Job Information Development Trend."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 7-10.
- Park, S.S., Jeon, H.J., and Jeong, C. (2010). "Content analysis of foreign tourists' complaints re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4(6), pp. 353-374.
- Rothman, R.A. (1987). "Work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Prentice-Hall, New Jersey, pp. 8-9.
- Song, I.S., and Kim, Y.J. (2020). "Analytic Review of Research Trends on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5(4), pp. 185-196.
- Statistics Korea Notification No. 2017-191 (2017. July 3),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Tae, Y.J., and Park, S.H. (2010). "Characteristics of Maeul-mandeulgi in Korea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Related Local Ordinances, 2000-2009."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7), pp. 175-182.
- Yook, D.I. (2017). "Text Mining-Based Analysis for Research Trends in Vocation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pp. 586-599.

---

**요약** :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커리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도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면서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그 간 축적되어 온 건설분야 직업 관련 선행 연구들의 속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건설분야의 직업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KCI등재 논문 중 건설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로 설정하였고, 판단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 7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내용분석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목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측정을 실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학의 학문적 기틀 마련 초기에는 해당 논문 게재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건설분야 직업 관련 연구는 사회과학보다는 공학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2차 자료 방법보다 1차 자료 방법이 월등히 많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연구방법이었다. 넷째, 연구대상으로는 인적 객체가 78.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 기술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연구주제로는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조직몰입과 같은 심리·행동적 측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국가적 무능력표준, 직무분석, 건설재해, 경력개발과 같은 구조·환경적 측면의 주제도 활발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건설, 직업, 연구동향, 내용분석

---